

# ‘시총 3위 라이벌’ 네이버·카카오, IP 활용 K콘텐츠 ‘격돌’

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 사활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 총력  
네이버, 동남아서 플랫폼 선전  
카카오, 美 기업 인수 등 사업 확장

주식 시장에서 시총 3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간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K-콘텐츠 경쟁이 뜨겁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등 K-콘텐츠 사업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웹툰 1위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격돌하고 있다. 양사는 글로벌 유명 웹툰 플랫폼 기업은 물론 웹소설 플랫폼 기업까지 인수하면서 두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인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웹툰 시장 규모는 9조원 수준으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웹툰이 영화, 드라마 등 소재로 활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시장 규모가 100조원 수준이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국내 웹소설 시장도 지난해 기준 60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 ‘글로벌 웹툰·웹소설 1위 플랫폼 굳히기’ vs 카카오 ‘1위 추격’

네이버는 최근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에서 월간 순 사용자수(MAU) 1200



카카오웹툰 태국 IPX 나훈렌.



네이버 웹툰-여신강림. /각사

만을 넘어서면서 동남아 현지에서 인기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이미 2019년 9월 전 세계 100개국에서 만화 앱(구글플레이 기준) 수익 1위에 올라선 데 이어, 지난해 지난해 8200억원 거래액을 기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MAU 7200만명을 달성하면서 글로벌 웹툰 1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여기에 IP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M&A에도 발벗고 나서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 기업인 왓패드 인수를 5월 초 마무리하면서 웹툰과 웹소설 1위 플랫폼을 합친 거대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됐다. 왓패드 9400만명 사용자까지 합하면 약 1억 6600만명 사용자를 보유한 것이며, 창작자는 약

570만명에 이르고, 약 10억개 이상의 창작물을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웹툰 스튜디오와 왓패드 스튜디오를 통합한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 설립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또 추가로 1000억원의 IP 글로벌 비즈니스 비즈니스 기금을 조성해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에 투자해 글로벌에서 영상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이 같이 선전 중인 네이버에 카카오가 도전장을 던졌다. 카카오는 카카오재팬의 웹툰 플랫폼 ‘픽코마’로 네이버를 제치고 일본 내 1위 웹툰 플랫폼에 올랐다. 특히, 픽코마는 최근 글로벌 앱 조사 업체인 앱애니 리포트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전 세계 비게임 앱 중 전 분기 대비 매출 성장률 3위를 기록했으며, 만화 앱 중 유일하게 1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도 미국 웹툰·웹소설 플랫폼 M&A 적극 뛰어 들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북미 웹소설 플랫폼 운영사인 래디쉬의 전체 주식 1억1678만4073주를 매입하는 데 4086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래디쉬는 2016년 설립된 모바일 특화형 영문 소설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체 제작 콘텐츠 ‘래디쉬 오리지널’로 히트 작품을 내며 지난해 연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또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의 전체 주식 1555만5018주를 사들이는 데 374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타파스는 2012년 설립된 북미 최초의 웹툰 플랫폼으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5배나 성장세를 보였다.

양사는 최근 태국·대만 웹툰 시장에서 서로 1위 플랫폼을 내세우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카카오웹툰이 태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만화’ 분야 1위, 애플 앱스토어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 2위를 차지했다고 밝히자, 네이버는 동남아 웹툰 매출·사용자 순위에서 네이버웹툰이 1위를 석권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번에는 히어로물 콘텐츠서 격돌... 네이버·마블코믹스 vs 카카오·DC코믹스 협력 선두 경쟁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에는 히어로물 콘텐츠 경쟁에 나섰다.

네이버는 마블코믹스와 카카오는 DC코믹스와 손잡고 웹툰 연재에 돌입했다. 국내 공식 마블 퍼블리셔인 시공사와 협업을 통해 마블코믹스의 대표 인기작인 ‘블랙 위도우’를 지난 6일 네이버웹툰에서 선보였다. ‘마블 웹툰 프로젝트’ 첫 번째 시리즈를 통해 마블 코믹스 원작을 웹툰 스크롤 형태에 맞게 재창조했다.

네이버웹툰은 또 마블코믹스 시리즈를 웹툰으로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9월부터 11월 개봉 예정 영화인 이터널스의 원작 코믹스를 비롯해 어벤저스, 스파이더맨, 헐크 등을 연재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미국 히어로물의 대표주자인 DC코믹스 시리즈인 ‘배트맨’을 시작으로 ‘저스티스 리그’, ‘원더우먼’, ‘슈퍼맨’ 등 4종을 전 세계 최초로 카카오페이지에서 한국형 컬러 웹툰으로 선보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만화 시장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이번 협업은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명작들을 발굴해 웹툰으로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LGU+, 센코와 안전 스마트시티·산단 ‘맞손’ “050번호로 안전하게 연락처 교환하세요”

안전사고·산재 예방 서비스 개발  
스마트 그린 도시사업 등 협력

LG유플러스는 센코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센코는 국내 유일의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를 제조·생산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토탈 센서 솔루션 기업이다.

최근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근로 현장 및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 및 쾌적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내 위험·유해 물질 등 감지 및 솔루션 상품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다. 센코가 생산하는 센서 기반 토탈 솔루션과 LG유플러스의 유·무선 통신 및 관제서비스를 융합해, 안전한 작업장 및 쾌적한 일상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상호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도시 내 악취, 미세먼지 등 유해 환경 물질을 모니터링하고,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주거지와 산업단지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양사는 또 ▲스마트 그린 도시사업 ▲수소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발굴 및 협력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산단 분야에서 사업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KT, ‘050 개인 안심번호’ 출시

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KT가 고객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인 전화번호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KT는 중고거래나 주차 등 불가피하게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외에 050를 추가로 연동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050 개인 안심번호’를 7일 출시했다.

KT가 이번엔 출시한 ‘050 개인 안심번호’는 월 1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유료 부가 서비스다. 기존 B2B 형태로 제공했던 서비스를 B2C로 확대한 것이다.

‘050 개인 안심번호’ 서비스 가입 시 ‘0502-0000-0000’ 형태의 12자리 안심 번호가 부여된다. 상대방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자동 연결된다.

특히 기존에 인터넷쇼핑몰이나 콜택시 등에서 임시로 부여해주는 050 번호와 달리, 한 번만 가입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예컨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에 연동한 050 번호를 명함에 기입하거나 주차 연락처, 택배 정보 입력 등에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에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050 번호로 수신된 전화나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부여된 050 번호는 3개월에 2회까지 변경할 수 있어서 스팸이나 광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올 경우,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 “극강의 생생함”... LGU+, ‘8K·3D·VR 드라마’ 선배

U+VR앱서 ‘리필-If Only’ 공개

LG유플러스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 ‘플레이리스트’와 손잡고 자사가 가상현실(VR) 서비스 플랫폼 ‘U+VR’ 앱에서 국내 최초로 8K·3D·VR 드라마 ‘리필 - If Only’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리필 - If Only’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커피를 마신 주인공이 연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고군분투를 펼치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총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당 10~15분 정도 분량이다.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오는 14일에는 1, 2화를 한번에 감상할 수 있고 9월까지 격주 수요일에 신규 콘텐츠를



LG유플러스 모델이 신규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공개한다.

이번 콘텐츠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고해상도(8K) ▲3차원 입체효과(3D)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드라마다. 이에 이번 VR 드라마에선 8K 초고해상도(8192 x 4096)로 감상할

수 있다. 현재 4K VR 콘텐츠에서는 시청자가 보는 전방의 해상도가 HD급에 불과하지만, 8K VR은 바라보는 곳의 픽셀이 풀 HD급 이상이기 때문에 고객 이더 편안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다.

/김순복 수습기자 sunbok@

## SKT, 하나카드 마이데이터 구축한다

자체 개발 솔루션 ‘TACO’ 기반

구축돼 오는 8월 초 오픈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컨테이너 관리 솔루션 ‘TACO’를 기반으로 하나카드의 마이데이터 구축에 나선다.

7일 SKT에 따르면 이번 구축은 양사가 지난 5월 체결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하나카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의 데이터 저장소에

SKT는 하나카드가 이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해 기존 금융권과 다른 차별화된 고객 중심 혁신금융 서비스를 발굴해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SKT는 금융권 최초로 하나카드 마이데이터 구축에 자체 개발한 기업 전용 클라우드 컨테이너 관리 솔루션 ‘TACO’를 적용한다. /채윤정 AI 전문기자